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방안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장

국민경제자문회의 · KDI 공동 컨퍼런스
2026.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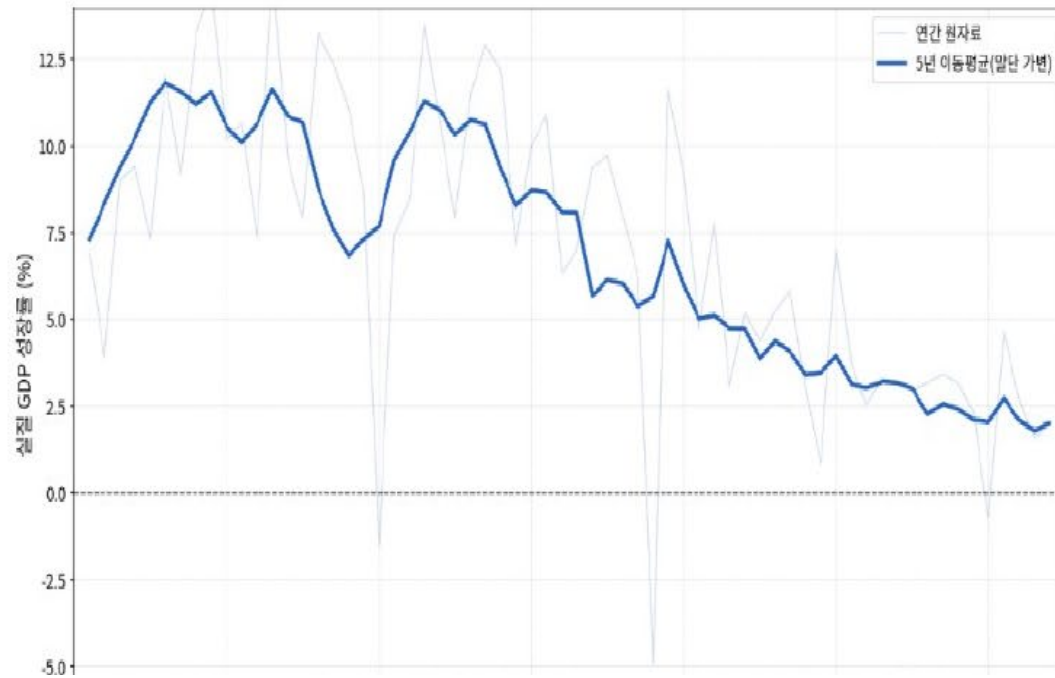
왜 지금 국가잠재력 타령인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락과 광범위한 AI 충격 속에서 국가경쟁력 회복은 인재
· 수요 · 데이터 · 지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그 연결이 만들어 낸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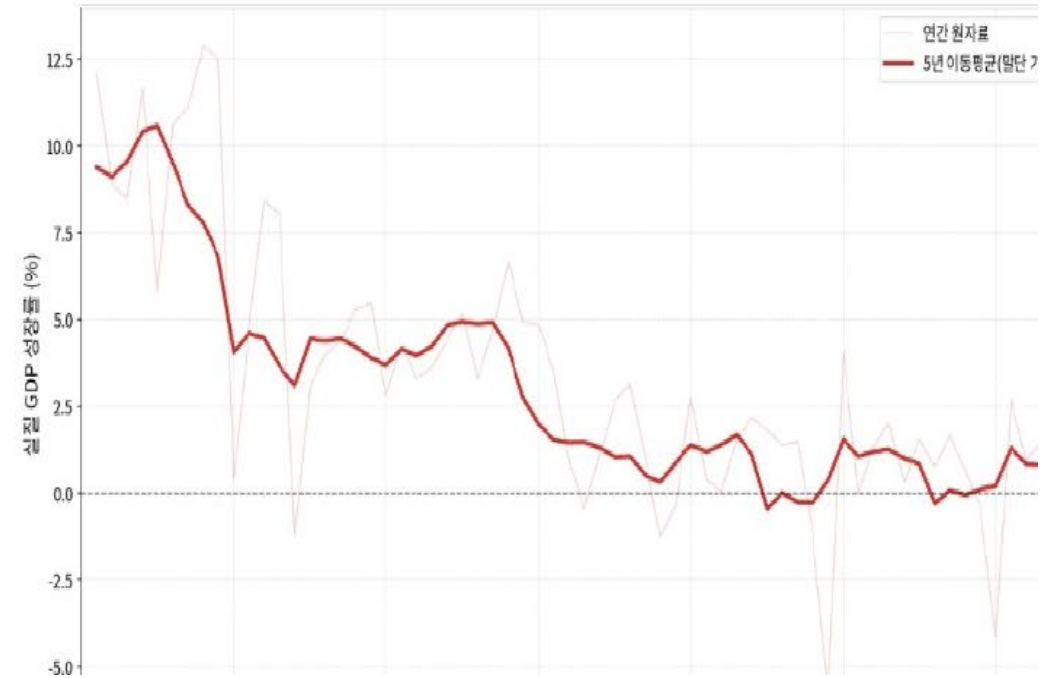
- 성장둔화와 AI 충격
- 교육혁신 · 평생학습 · AI 확산
- 데이터 · 측정 · 평가 (국가 필수 인프라)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 추이 비교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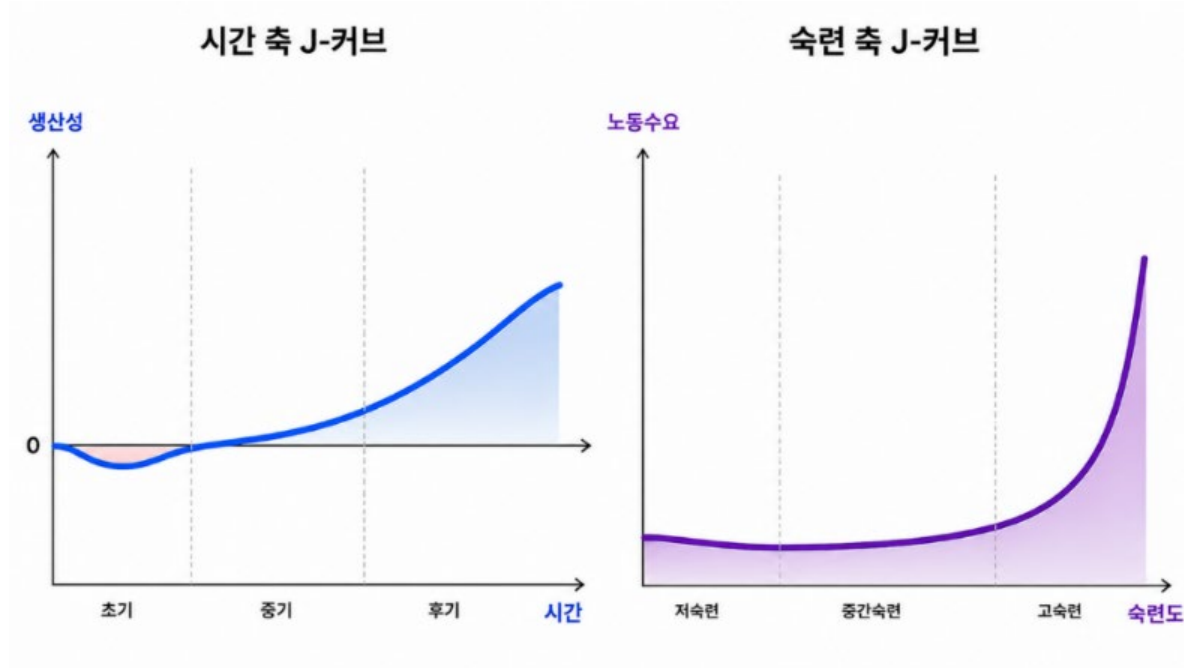
다음 30년을 위한 선택의 기로



일본처럼,
잃어버릴 30년

아니면,
새로운 도약의 30년

AI 시대 두 개의 J-Curve



시간축 J-Curve

초기 혼란과 전환비용을 겪고 나서야
생산성 상승

숙련축 J-Curve

저숙련과 중간숙련층의 노동수요는 큰 압박을
받으나, 문제정의 · 목표설정 · AI 활용 역량 등
고숙련층의 노동수요는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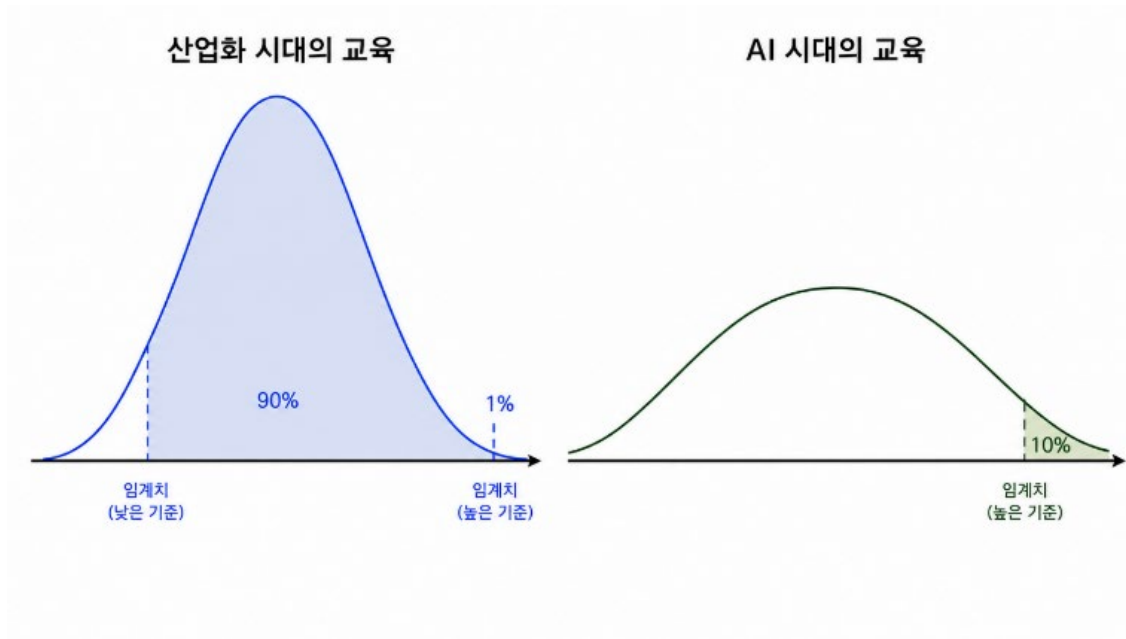
AI와 인구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공급 감소

AI 충격:
저·중숙련 노동 대체
노동수요 재편

정책 과제:
사람을 보호하되
역량과 이동성 키움

AI 시대 교육의 목표와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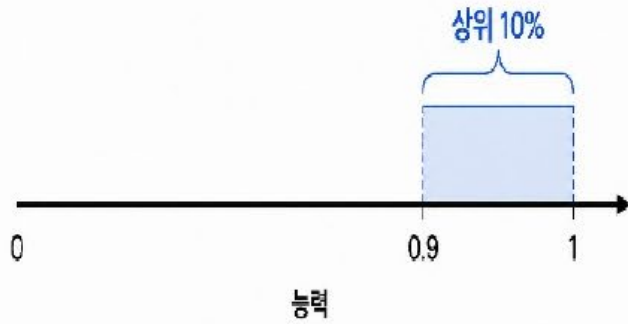
“평균 성취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AI 시대의 질문

“문제를 정의하고, 결합하고, 새로 만들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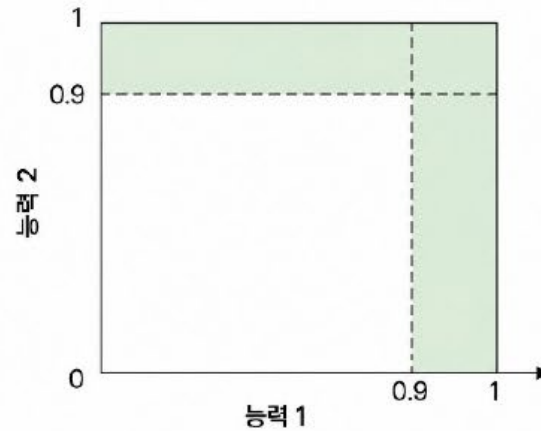
선택과 집중, 더 많은 축, 더 많은 승자

하나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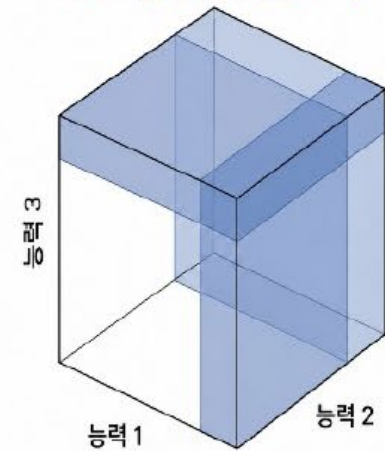
승자의 비율 = $10\% = 1 - 0.9$

두 개의 독립인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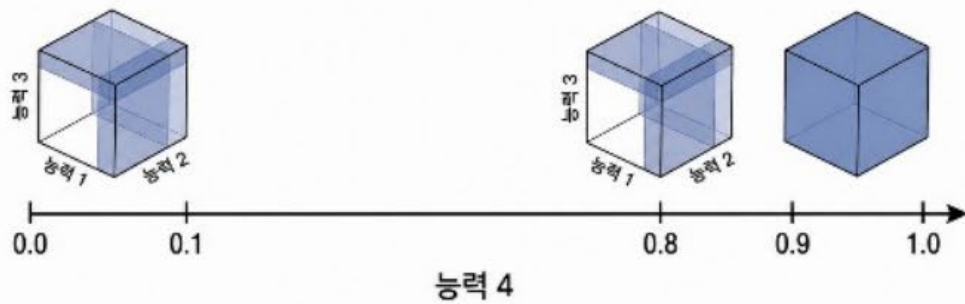
승자의 비율 = $19\% = 1 - 0.9^2$

세 개의 독립인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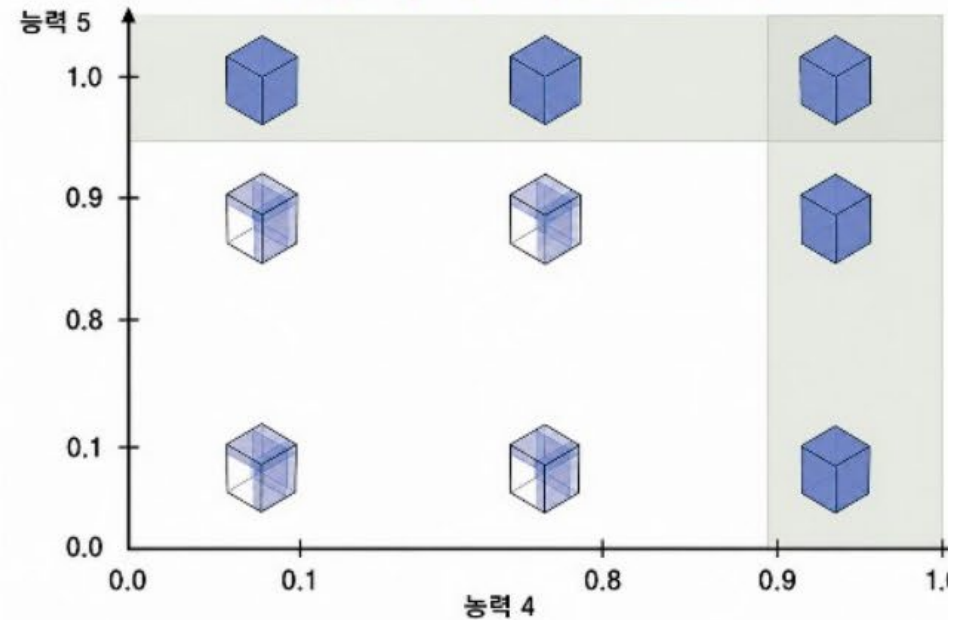
승자의 비율 = $27\% = 1 - 0.9^3$

네 개의 독립인 축



승자의 비율=34%= $1-0.9^4$

다섯개의 독립인 축



승자의 비율=41%= $1-0.9^5$

교육정책은 당장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더 많은 축에서 더 많은 승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학 모델은 Gallery-Curator 모델로 전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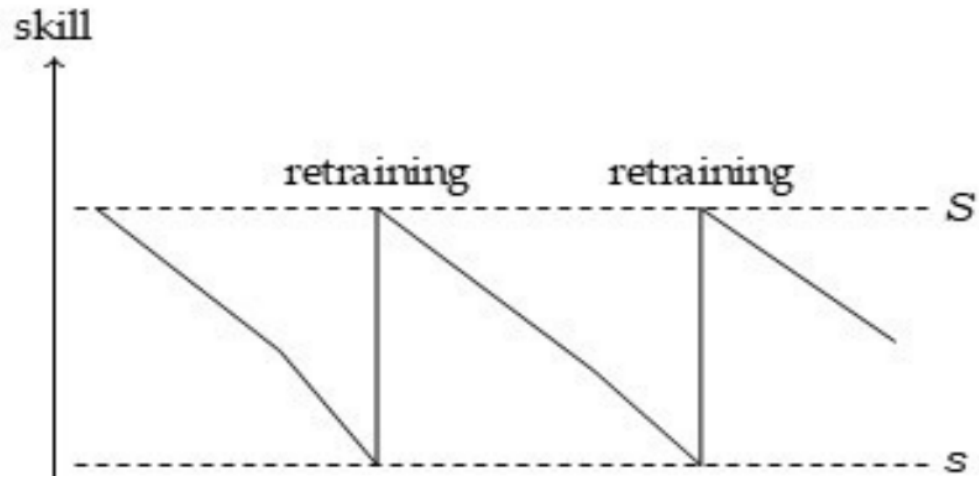
교수
지식 전달자 → 큐레이터

학생
표준 경로 → 맞춤형 학습경로

교육
주입식 강의 → 프로젝트 · 문제해결

대학은 일회성 교육기관에서 평생학습 · 재학습의 열린 플랫폼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재고 관리하듯 인적자본 관리: (s,S)형 평생교육



- AI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 속도를 높입니다.
- 역량이 s 이하로 하락하면 재교육을 통해 S 까지 회복합니다.
- 청년 교육 · 재직자 전환훈련 · CEO 교육 · 캡스톤 프로젝트 · 대학 · 기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ABS·ABC 모형 소개

ABS

AI BigData Specialist

청년 대상 · 7개월 · 1,040시간
기업연계 캡스톤

ABC

AI BigData CEO

CEO · 임원 대상 · 6개월 · 156시간
AI 활용 전략과 문제 정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청년 ↔ 기업, 대학교육 ↔ 산업, 공급 ↔ 수요

Big Demand for AI

- 기업 현장의 문제를 AI 과제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 CEO와 임원의 AI 수요 창출 역량이 조직과 구성원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 AI는 bottom up으로 발전했지만 AX는 top down이 빠르고 일관되고 효과적입니다.
- AI 생태계가 지역 · 중소기업까지 확산돼야 지방도 살고 청년도 삽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AI 생태계 10개 구축하기”가 와 닿습니다.

AAII로 본 독파모와 세계 최전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개자료·언론 보도(2026.8.27),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2026.8 기준). 평가시점·버전에 따라 점수 차이 가능.

국내 AI 모형은 30~40점대, 세계 최상위권은 60점대. 큰 격차는 남아 있지만, 글로벌 중상위권 진입 가능성은 확인

독파모 종합 평가표

항목	SKT	업스테이지	LG	모티프
AAII /25	8.8	9.4	7.8	11.9
NIA /15	13.4	13.3	12.8	12.7
전문가 /35	29.3	29.1	29.5	27.1
전문사용자 /15	11.6	10.8	11.3	8.4
일반국민 /10	7.5	7.3	7.6	5.7
총점 /100	70.6	69.9	69.0	65.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 평가 세부점수 공개(2026.8.27) 및 연합뉴스 보도.

- 모티프는 AAII에서 1위
- 종합점수는 SKT가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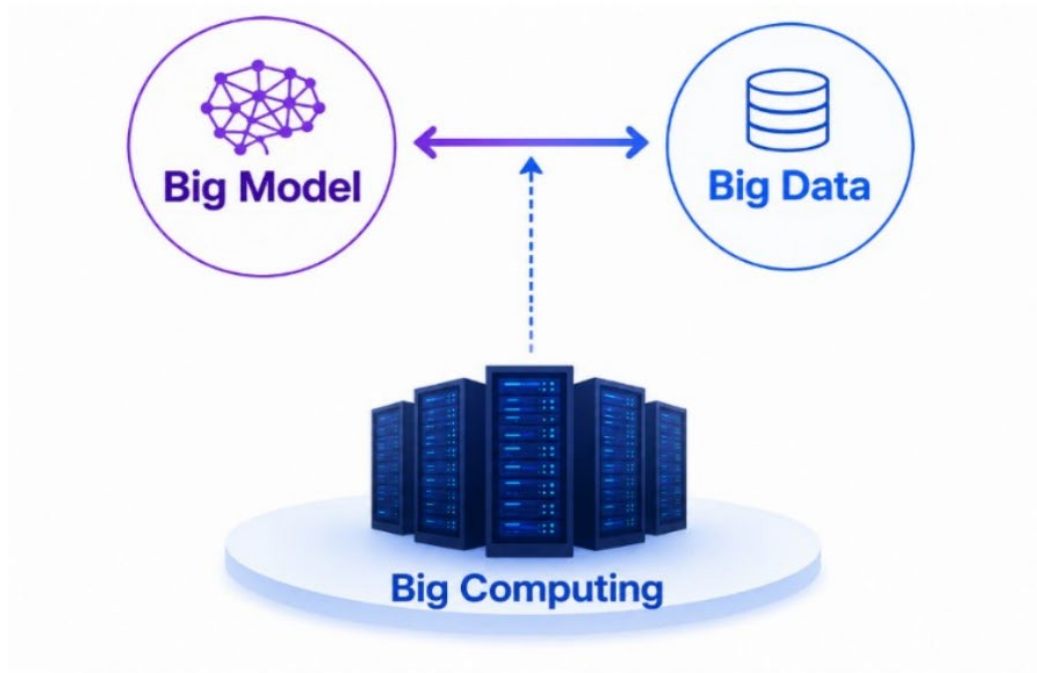
AI 3대 강국: “3위”는 기수가 아니라 서수입니다



-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AI 주권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 진정한 AI 강국은 모델 · 데이터 · 컴퓨팅 · 도메인을 결합해 AI를 가장 잘 쓰는 국가입니다.
- 한국의 승부처는 AI의 산업 응용 · 확산 · 현장 적용 역량입니다.

모델 순위 경쟁 → 시스템 경쟁, AI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AI 정책의 중심이 이동해야 합니다.

AI=Three BIGs. 여기에 Big Application이 추가돼야 AX!



- Big Model: 고성능 모델과 특화모델 개발 · 개량
- Big Data: 데이터를 개발하고 또 안전하게 연결 · 활용
- Big Computing: 학습 · 추론 · 검증 인프라
- Big Application: 제조 · 의료 · 교육 · 금융 · 행정 · 지역으로 확산

이제, 국가 운영의 기본 4종

(하나. 기본 데이터)

안전한 국가 데이터 연계 인프라

둘. 기본 측정

경제상태와 정책효과를 같은 잣대로 측정

셋1. 기본 훈련+ 셋2. 기본 정책

새 기술·새 일로 이동할 능력 + 자립 가능한 데까지 지원

넷. 기본 구제

그래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을 두텁게 지원

먼저 연결하고, 같은 잣대로 측정하고, 자립을 도운 뒤, 남은 위험을 집중 보완합니다.

하나. 기본 데이터: Hub-and-Spoke 국가데이터 연계

허브

- 인구·가구 통계등록부
- 기업통계등록부(SBR)
- 지역·공간 기준정보

스포크

- 국세·고용·복지·교육·주거·연금
- 의료·금융·특허·무역 등 행정자료
- 필요 시 민간·공간 데이터 연계

안전장치

- 동형암호
- 차등정보보호
- 합성데이터

원자료는 흩어져 있어도 됩니다. 연결 기준만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등록부로 통일하면 됩니다.

국가데이터처: 성장정책의 새로운 인프라

- Hub-and-Spoke 방식의 자료 연계
- 통계등록부를 hub 축으로 해서 각 부처 · 공공기관 · 민간 데이터를 spokes처럼 연결
- 주소지 (위도, 경도)를 기준으로 인구 · 가구 통계등록부와 기업통계등록부도 연계 가능
- 동형암호(HE) 등 PETs로 개인정보보호, 원자료 노출 최소화
- 집행과 측정의 분리
- 정책의 사전 시뮬레이션과 사후 평가
- 정밀한 복지 · 조세 · 산업 · 고용 분석

둘. 기본 측정: 경제상태를 하나의 잣대로

- 근로소득만 보아서는 실제 경제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 가구소득, 자산, 부채, 주거, 연금, 복지수급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은 개인 단위로 환산하고, 비유동 자산은 소득흐름으로 바꾸어 봅니다.
- 그래야 누가 정말 어려운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책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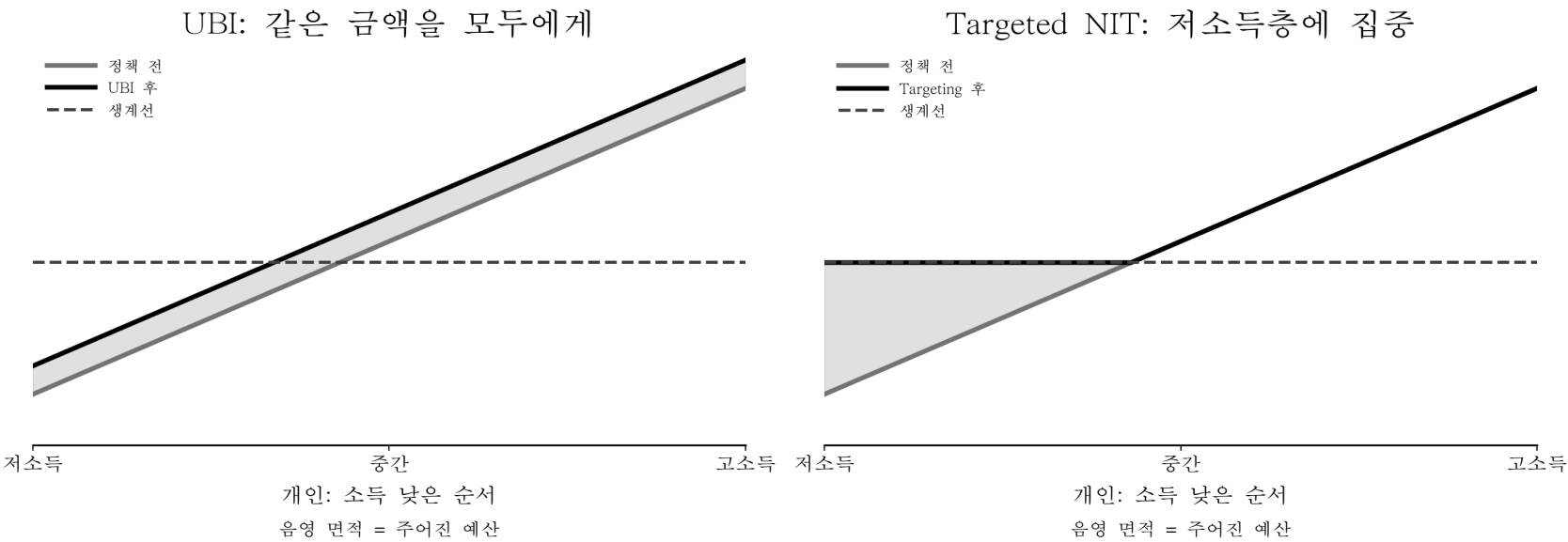
핵심은 단일화된 개인화 소득지표입니다.

정책효과를 눈에 보이게

- 정책 전후의 개인화 소득분포를 같은 그림에 놓고 비교합니다.
- 평균이 아니라 취약계층이 실제로 나아졌는지를 확인합니다.
- 따라서 기본 측정은 복지정책만이 아니라 성장정책, 교육정책, 지역정책의 공통 기반입니다.

같은 잣대로 재야 정책의 우선순위와 성과가 보입니다.

보편 지급과 정밀 타기팅의 차이



같은 예산이라도 정밀 타기팅은 생계선 아래 인구를 더 크게 줄입니다.

충분성·지속가능성과 함께 보려면 기본 측정에 기반한 타기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인구소멸 농어촌지역 지원도 일종의 타기팅입니다

소멸위험 농어촌 지원도 넓게 보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타기팅입니다.

인구가 줄고, 상권이 약해지고, 청년이 떠나는 지역은 시장만으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핵심은 기본 측정입니다.

투입 이후 소비, 고용, 청년 체류, 지역 내 소비 승수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정책도 단순한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국가잠재력을 회복하는 투자가 됩니다.

처음부터 평가 가능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소멸위험 농어촌 지원같은 대규모 사회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비교집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전후 다른 이유로 인한 변화와 처리효과(treatment effect)를 구분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성과 홍보와 독립기관의 객관적 효과 측정은 다릅니다.

셋1. 기본 훈련: 새 기술과 새 일로 이동할 능력

AI 시대에는 현금 이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과 직무, 기업 수요가 계속 바뀝니다.
청년에게는 AI·데이터 집중교육과 기업 프로젝트를 연결합니다.
재직자에게는 전환훈련, 중장년에게는 재출발 교육을 제공합니다.
CEO와 임원에게는 조직의 AX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본 훈련은 복지 지출이 아니라 성장잠재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셋2. 기본 정책: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돕습니다

세 번째 기본의 둘째 하부 항목은 기본 정책입니다.

핵심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자립할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이 역량을 키우는 정책이라면, 주택연금 활성화는 보유 자산을 생활의 유동성으로 바꾸는 정책입니다.

예컨대 "house rich, cash poor" 인 고령층의 경우 보유주택을 안정적인 소득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기본 정책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자립과 경제안정을 함께 높입니다.

넷. 기본 구제: 국가의 마지막 책임

스스로 설 수 없는 취약계층을 정확히 타기팅

이때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

기본 훈련과 기본 정책으로도 남는 위험을 기본 구제로 정밀하게 보완합니다.

참고: UBI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

지속가능성 (Sus)

장기 재정 안정성

보편성 (U)

모두에게 지급

충분성 (Suff)

실질적 위험 감소

- 보편성 + 지속가능성: 예산이 고정되면 1인당 지급액은 낮아집니다. Not Suff.
- 보편성 + 충분성: 모두에게 충분히 주면 재정 지속가능성이 약해집니다. Not Sus.
-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주려면 결국 기본 측정에 기반한 타기팅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1: 전국 AI 생태계와 국가 데이터 인프라의 결합

한쪽에는 지역 대학, 기업, 지자체, 청년과 중소기업이 연결된 AI 교육·수요·응용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만 있고 수요가 없으면 청년은 떠납니다. 수요만 있고 인재가 없으면 기업도 떠납니다.

다른 한쪽에는 국민과 기업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가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표준과 인프라를 만들고, 지역은 현장의 수요와 실험을 만들며, 대학과 기업은 사람과 프로젝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마무리 2: 국가는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AI 시대에는 어떤 일자리는 줄고, 어떤 일자리는 새로 생길 것입니다.
국가가 기존 일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계속 배우고 이동하며 새로운 기술과 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위험에 빠졌을 때는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성장잠재력은 사람을 다시 세우고 연결하는 국가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마무리 3: 연결하는 국가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합니다

AI 시대 국가잠재력 회복의 핵심은 Big Model 하나가 아니라 사람, 수요, 데이터, 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운영체제입니다.

그 위에 기본 4종이 올라가야 합니다: 기본 데이터, 기본 측정, 기본 훈련과 기본 정책, 기본 구제입니다.

한국의 여건은 쉽지 않지만 좋은 인재, 빠른 실행력, 강한 제조 기반, 높은 디지털 역량이 있습니다.

이 장점을 제대로 연결하면 AI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해 계속 달려야 합니다.

다시 달리는 한국경제

2026년 8월 17일

몽골리아 테렐지 국립공원

